

## 찰보리 澱粉의 理化學的 特性

尹 桂 順·姜 玉 珠·金 燦 淑

延世大學校 食生活學科  
(1984년 1월 20일 수리)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Waxy Barley Starch

Gae-Soon Yoon, Ock-Joo Kang and Hyong-Soo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tarch isolated from two kinds of waxy barley were investigated. The average diameters of starch granules of Changyoung and Smire were 13.6 and 16.6 microns, respectively, and most of starch granules were round shap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wo samples were A-types and amylose contents of two waxy barley starches were 4%, blue values and alkali numbers of Changyoung and Smire were 0.22 and 0.18, 5.2 and 4.0, raising powers of them were 167 and 173, respectively. The optical transmittance of 0.1% suspension of waxy barley starches increased rapidly from 51°C to 75°C. Amylogram data on 5% of Changyoung and Smire starch solutions showed the gelatinization temperature of 63 and 62°C, maximum peak hight of 920 and 900 B.U., respectively. Waxy barley starches had higher swelling powers than non waxy barley starch. The starch pastes prepared from waxy barleys retrograded much slower than that of non waxy barley.

### 緒 論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보리는 쌀보리이든 찰보리이든 간에 모두 메澱粉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리에 따라서는 찰澱粉을 간직한 품종이 있는데 찰澱粉은 分子 구성이 대부분 amylopectin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澱粉粒子의 特性이 메澱粉粒子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食品加工에 색다르게 쓰이고 있다.

찰보리 澱粉에 관한 研究로는 Goering等<sup>1)</sup>이 찰보리 品種을 메보리 品種에 교배하여 얻은 찰보리 澱粉의 부분적인 性質을 밝힌 바 있다.

본 實驗에서는 現在 우리나라에서 保存되고 있는 찰보리品種인 창영과 스미레의 澱粉을 分離하여 그 理化學的 特性을 分析檢討하였다. 그 結果를 보고하는 바이다.

### 材料 및 方法

#### 1. 材 料

1982年產 찰보리 品種인 창영 및 스미레와 메보리 品種인 영산보리를 수원 동촌진흥청 麥類研究所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 2. 濕粉의 調製와 一般成分 分析

Wilson等<sup>2)</sup>의 alkali 침지법을 수정하여 試料澱粉을 調製하고 精製度를 알기 위해 각 試料澱粉의 水分, 灰分, 粗脂肪, 粗蛋白質 함량을 AOAC法<sup>3)</sup>에 의해 分析하였다.

## 3. 濕粉粒子의 成狀과 크기<sup>4)</sup>

50% glycerine 水溶液에 濕粉농도 5%가 되도록 試料를 分散시키고, 0.02% I<sub>2</sub> 용액으로 染色하여 濕粉粒子를 photomicroscope (Nikon M-35)로 4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 4. X-ray 回折<sup>5)</sup>

澱粉試料를 10×20×2(mm<sup>3</sup>)의 aluminium상자에 충전하여 X-ray diffractometer (Rigaku Co., Japan)을 사용하여 回折圖를 얻었으며 條件은 前報<sup>6)</sup>와 같다.

## 5. 濕粉의 理化學的 特性

試料澱粉의 amylose, amylopectin의 분획은 Schlock<sup>7)</sup>의 butanol沈澱法을 수정하여 행하였다. Amylose 함량은 iodocalorimetric방법<sup>8)</sup>으로 定量하였으며 amylose 標準曲線은 영산메보리의 amylose와 각시료澱粉의 amylopectin을 사용하여 作成하였다. Blue value는 Gilbert法<sup>9)</sup>, alkali number는 Schoch法<sup>10)</sup>, 膨化力은 Takabashi法<sup>11)</sup>에 따라 측정하였고, 糊化溫度는 Wilson等<sup>2)</sup>의 方法에 따라 0.1% 濕粉현탁액을 625nm에서 光投過度로부터 구하였다. 濕粉試料의 粘度變化는 Brabender amylograph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sup>12)</sup> 한편 濕粉의 膨潤力(swelling power)은 Leach等<sup>13)</sup>의 方法을 수정하여 행했고, 용해도를 보정하여 표시하였다.

## 6. 濕粉의 老化<sup>14,15)</sup>

전분을 증류수와 섞어 50%농도로 한후 oven에서 45°C부터 95°C까지 40분내에 온도를 상승시켜 烷화시켰다. 烷화된 전분 gel을 상온에서 20분간 냉각시키고 2°C에서 4일간 저장하면서 gel의 노화도를 glucoamylase소화반응 및 Somogi Nelson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 結果 및 考察

### 1. 調製澱粉의 一般成分과 粒子의 成狀

찰보리(창영, 스미레) 및 메보리로부터 分離精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starches prepared from waxy (Changyoung, Smire) and non waxy (Yungsan) barleys

	Changyoung	Smire	Yungsan
Moisture(%)	12.2	11.5	11.8
Crude ash(%)	0.10	0.10	0.13
Crude fat(%)	0.10	0.03	0.14
Crude protein(%)	0.08	0.04	0.05
Amylose content(%)	4	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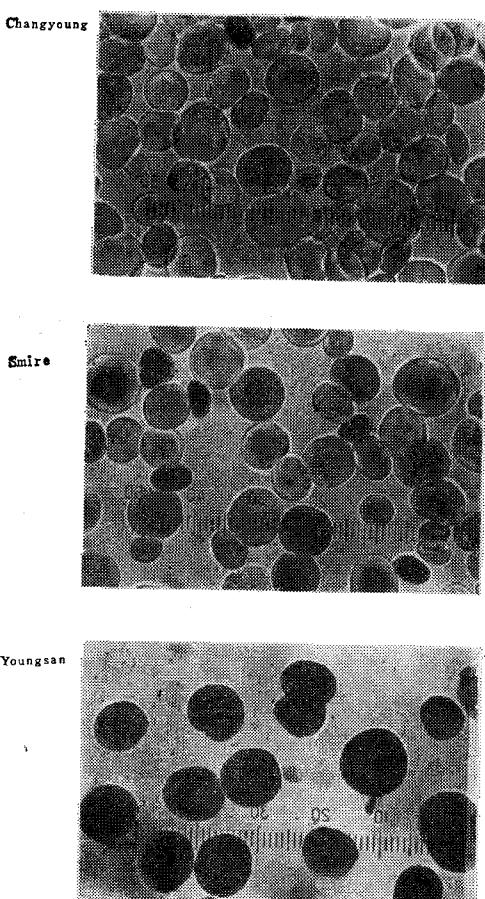


Fig. 1. The photomicrographs of starch granules prepared from barley ( $\times 400$ )

製한 濃粉의 一般成分 分析 結果는 Table 1과 같으며, 현미경으로 관찰한 粒子의 成狀은 Fig. 1과 같다. 3種의 보리 濃粉形態는 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각 濃粉의 평균粒徑은 창영  $13.4\mu$ , 스미례  $16.6\mu$ , 영산  $18.8\mu$ 이었다.

濃粉粒子의 形態와 크기 및 均一性은 그 濃粉粒子들의 出處에 따라 두드러지게 다른데 대체로 보리濃粉의 粒子는 수수나 쌀濃粉보다 크며 그 크기는  $2\sim35\mu$ 에 걸쳐 平均  $18.8\mu$ 으로 보고되었다.<sup>16)</sup>

## 2. X-線 回折

濃粉粒子는 結晶性의 部分과 非結晶性 部分이 있으며 X-ray 회절도로서 個個結晶子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찰보리 濃粉의 회절도는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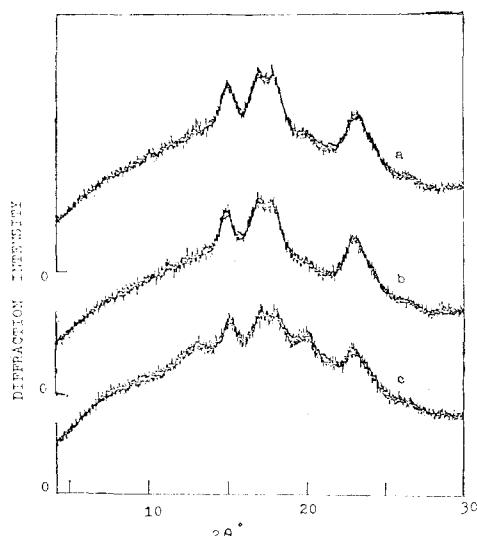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waxy(a; Changyoung, b; Smire) and non waxy barley starches (c; Youngsan)

세品種의 보리濃粉은 모두  $2\theta = 15.0^\circ, 18.0^\circ, 23.0^\circ$ 에서 회절강도가 강하여, A形의 結晶構造를 나타냈으며, 메보리에 비해 찰보리인 창영과 스미례에서  $17.2^\circ, 18.0^\circ$ , 환의 회절강도가 다소 강했으나, 두 찰濃粉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Banks等<sup>17)</sup>에 의하면, 濃粉의 結晶性은 amylopectin構成物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찰濃粉의 회절도가 메보리濃粉보다 예리하고<sup>18)</sup> 또한 찰보리濃粉이 메보리濃粉보다 더 강한 회절도를 보임으로

서, 주로 amylopectin만으로構成된 찰濃粉이 메보리濃粉보다 結晶性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3. 濃粉의 理化學的 特性

창영과 스미례 두 찰보리 濃粉의 amylose 함량은 Table 1에서와 같이 모두 4%를 나타냈고, 영산메보리 濃粉은 29%였다.

김등<sup>16)</sup>이 보고한 영산메보리 濃粉의 amylose 함량 28.7%와 비교할 때 類似한 값이며 찰보리濃粉의 경우 찰濃粉이라 해도 100% amylopectin만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2. Physico chemical data on waxy and non waxy barley starches

	Changyoung	Smire	Youngsan
Blue value	0.22	0.18	0.52
Alkali number	5.2	4.9	8.4
Raising power	167	173	20

찰보리濃粉의 blue value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0.22\sim0.18$ 로 메보리濃粉보다 낮고 찰보리 品種간에는 창영濃粉이 스미례濃粉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濃粉의 blue value는 濃粉溶液 중에 存在하는 級鏈상 분자의 量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값이므로 amylopectin만으로構成된 찰濃粉의 オオド結合은 分解된 amylose가 다소 뭍어 있거나, amylopectin의 가지가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sup>19)</sup> Amylose 함량이 같은 本試料 두種의 찰보리濃粉에서 blue value의 차이는 Goering等<sup>11)</sup>이 사사한 amylopectin의 chain 길이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찰보리濃粉의 alkali number는  $4.9\sim5.2$ 로 메보리濃粉의  $4.2^{\circ}$ 와 비교하면 약간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곡류의 alkali number는 찰옥수수濃粉이  $4.0\sim5.5$ , 메옥수수가  $9.8\sim12.5$ 정도로 찰濃粉에서 더 작은 값을 보임으로서 還元性 末端기의 數가 더 적음을 推定할 수 있다.

膨化力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보리濃粉과는 顯著한 차이가 있으며 Takabashi等<sup>11)</sup>이 행한 찰濃粉 261보다는 다소 낮은 값이지만 amylopectin만으로構成된 찰濃粉 특유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濃粉의 加熱處理로  $\alpha$ -화가 일어나 膨化現象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mylopectin의 함량

과 特性에 기인되는 것이나 水分과 반죽의 物理的 性質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sup>26)</sup>

#### 4. 糊化溫度 및 amylogram特性

0.1% 濃粉현 탁액의 光投過度에 의한 糊化양상은 Fig. 3과 같다. 찰보리 濃粉의 경우 51°C까지는 變化가 없었으나 그후 입자가 수화되면서 급격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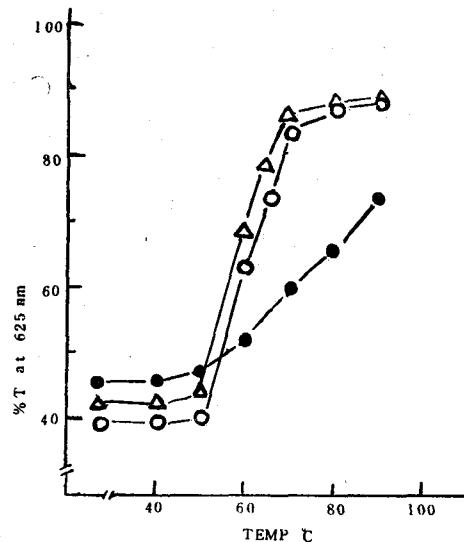


Fig. 3. Changes in transmittance of 0.1% waxy and non waxy barley starches.  
 (—○—○— : Changyoung, —△—△— : Smire, —●—●— : Youngsan)

增加하였고 75°C 이상에서 최대값을 보임으로써 배보리 濃粉과는 光投過度양상이 현저하게 달랐다.

溫度上昇에 따른 스미에 찰보리濃粉의 光投過度는 창영보다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本實驗과 동일한 方法으로 실시한 찹쌀濃粉의 糊化양상에서는 60°C 이후부터 投過度가 增加하여 찰보리濃粉이 찹쌀濃粉보다 더 빨리 糊化가 始作

됨을 알 수 있다.<sup>6)</sup>

Brabender amylograph에 의한 糊化양상은 Table 3과 같다. Amylograph에 의한 糊化開始溫度는 62~63°C로서 光投過度에 의한 것보다 다소 높으며 두 品種의 찰보리 濃粉 모두 72°C에서 900~920 B.U.의 최고粘度를 보여 배보리濃粉보다 迅速하게 최고粘度에 到達하고 그 溫度 또한 낮았다.

Brabender粘度의 양상은 濃粉粒子의 膨潤程度 및 加熱에 대한 부풀어 오른 濃粉粒子간의 마찰에 의해決定되며 Goering等<sup>13)</sup>은 粒子의 크기도粘度에 關係하여 큰 粒子가 높은粘度를 갖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Amylose流出이 많은 배보리濃粉의 경우 冷却時에 gel을 形成함으로서粘度가 급격히 增加하는데<sup>23)</sup> 비해 찰보리濃粉은 冷却粘度의 上昇이 아주 적어 gel이 잘 形成되지 않으며, 따라서 老化現象도 대단히 느릴 것으로 推定된다.

#### 5. 膨潤力과 溶解度

찰보리濃粉의 膨潤力은 Fig. 4와 같다. 60°C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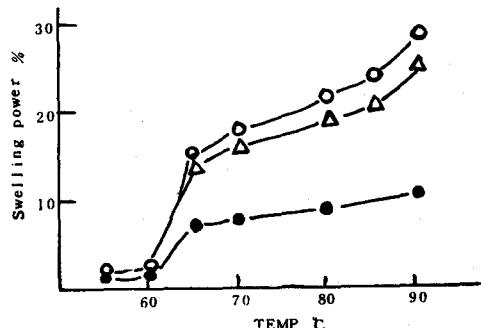


Fig. 4. Swelling power of waxy and non waxy barley starches.  
 (—○—○— : Changyoung, —△—△— : Smire, —●—●— : Youngsan)

Table 3. Amylograph data on waxy and non waxy barley starches. (5% solid basis)

Sample	Gelatiniza-	Maximum	Maximum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tion temp.	viscosity	viscosity temp.				
	°C	B.U.	°C	B.U.	B.U.	B.U.	B.U.
Changyoung	63	920	72	400	320	300	330
Smire	62	900	72	390	300	290	300
Youngsan*	89.5	120	92.5	—	—	—	—

\* 5.5% Solid basis<sup>18)</sup>

상에서부터 신속하게膨潤되다가  $65^{\circ}\text{C}$  이상에서는 완만한增加를 보이고 다시  $80^{\circ}\text{C}$  이상에서 높은增加를 보여 주고 있다.

두 찰보리澱粉 모두 메보리澱粉의 膨潤力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지만 칡쌀澱粉이나 찰옥수수澱粉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sup>21)</sup>

澱粉의 溶解度를 測定하여 Fig. 5와 같은데 찰보리澱粉은  $90^{\circ}\text{C}$ 까지 加熱하는 동안 20%程度의 溶解度를 보여주고 있어 약 10%의 값을 보인 메보리와 비교할 때 거의 2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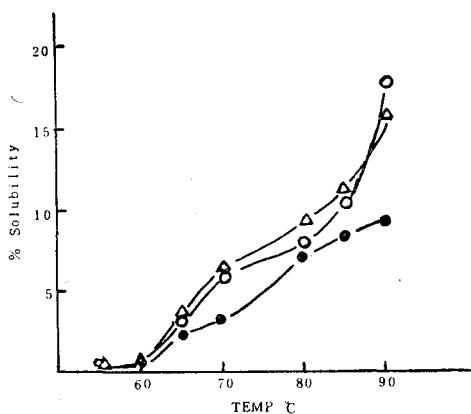


Fig. 5. Solubility of waxy and non waxy barley starches.

(—○—○— : Changyoung,  
—△—△— : Smire,  
—●—●— : Youngsan)

그러나, 膨潤力에 대해 溶解度를 Fig. 6에서와 같이 나타내면 같은 膨潤水準에서는 amylose 함량이 많은 메보리가 더 높은 용해도를 보였다. 이는, Fig. 4에서 본 것처럼 찰보리澱粉이 粒子內의結合力이 弱하다고 볼 수 있으나 粒子內의澱粉物質을 固定하는데 좀 더 강한 性質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같은 膨潤水準에서는 amylose가 amylopectin보다 더 쉽게 용출됨을 알 수 있다.

찰보리澱粉을 찰수수나 찰옥수수와 비교할 때는 溶解度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나<sup>21)</sup> 膨潤力은 1/2배에 불과하여 그 粒子간의結合力이 비교적 큰 澱粉이라고 推定된다.

#### 6. 澱粉 gel의 老化

糊化된 澱粉 gel을 放置해 두면, 分子들 상호간에 水素結合을 이뤄 結晶화 되는 現象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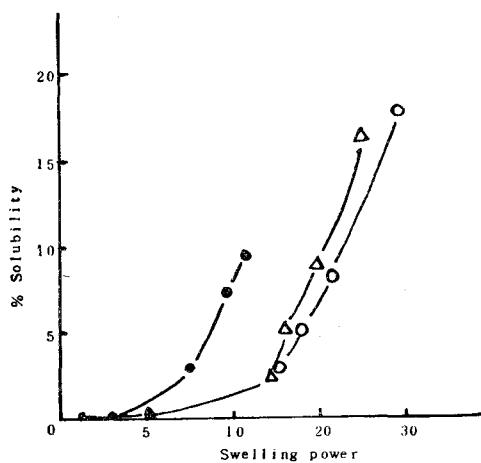


Fig. 6. Relationship between swelling power and solubility of waxy and non waxy barley starches.

(—○—○— : Changyoung,  
—△—△— : Smire,  
—●—●— : Young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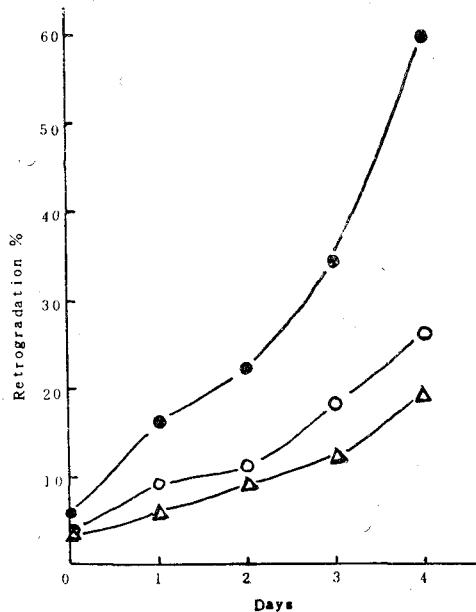


Fig. 7. Degree of retrogradation of waxy and non waxy barley starches in Storage at  $2^{\circ}\text{C}$  by gluco-amylase digestion method.

(—○—○— : Changyoung,  
—△—△— : Smire,  
—●—●— : Youngsan)

Gluco-amylase 소화작용으로 测定한 老化度結果는 Fig. 7과 같다.

찰보리澱粉은 베보리보다 훨씬 낮은 老化率을 보이고 있으며 1日이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日부터는 2倍이상의 낮은 값을 보였고, 비교적 완만한 老化現象을 나타냈다.

澱粉의 老化는 그 澱粉을構成하는 amylose와 amylopectin의 合量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전분 그 자체나 그 澱粉속의 amylose, amylopectin構造上의 특징도 중요하다.<sup>22)</sup> 같은 amylopectin이라 해도 chain이 짧고 branching이 많은 amylopectin이 더 늦게 老化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본 實驗에서 나타난 두 찰보리澱粉의 老化度의 차이는 이들의 澱粉을構成하고 있는 amylopectin의 分子構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要 約

찰보리 品種인 창영과 스미례 澱粉을 分離하여 粒子의 成狀과 理化學的特性을 檢討하였다. 광학현미경으로 본 粒子의 外形은 대부분 원形으로 平均直徑은 창영  $13.4\mu$ , 스미례  $16.6\mu$ , 이었고, X-ray회절도는  $2\theta$ 에서 베보리(영산品種)에 비해  $17.2^\circ$ ,  $18.0^\circ$ , 환의 회절強度가 다소 강했다. Amylose함량은 창영과 스미례 모두 4% blue value는 각각 0.22, 0.18이었고, alkali number는 5.2, 4.9, 膨化力은 167, 172이었다. 澱粉현탁액(0.1%)의 光投過度는  $51^\circ\text{C}$  이후 급격히 增加했고  $51^\circ\text{C} \sim 75^\circ\text{C}$ 에서 single stage 糊化양상을 보였다. Amylograph에 의한 澱粉의 糊化開始溫度는 창영  $63^\circ\text{C}$ , 스미례  $62^\circ\text{C}$ 였고,  $72^\circ\text{C}$ 에서 最高粘度 920, 900 B.U.를 보였으며 冷却粘度의 上昇率이 아주 낮았다. 膨潤現象은  $60^\circ\text{C}$  이후에 급격히 增加해서  $90^\circ\text{C}$ 에서는 27~30程度였으며,  $2^\circ\text{C}$ 에서 저장한 澱粉 gel의 老化는 완만하게 進行되어 4日째에는 25%程度였다.

### 謝 意

本研究를 進行함에 있어서 材料를 提供하여 주신 농촌진흥청 類研究所 김영상 박사와 장학길 선생에게 深深한 謝意를 표하며, brabender amylograph의 사용을 도와 주신 한국에너지 연구소이 정호 실장에게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 參 考 文 獻

1. Goering, K.J., Eslick, R. and De Haas, B.W.: Cereal chem., 50 : 322(1973).
2. Wilson, L.A., Birmingham, V.A., Moon, D. P. and Synder, H.E.: Cereal chem., 55 : 661 (1978).
3. AOAC: Official Method of Analysis, 10th ed. (1976).
4. 조재선: 한국식품과학회지, 10 : 57(1978).
5. 檜作進: 澱粉科學ハンドブック, (二國二郎編) p. 208, 朝倉書店(1977).
6. 김형수, 강옥주, 윤계순: 한국농화학회지, 26 : 211(1983).
7. Schoch, T.J.: Adv. carbohy. chem., 1 : 247 (1945).
8. 福場博保, 貝沼圭二: アミロースとアミロベクチンの定量, 澱粉科學ハンドブック, p. 174(1977)
9. Gilbert, L.M. and Soragg, S.P.: Methods in carbohydrate chemistry, Vol. IV, p. 25, Academic press (1964).
10. Schoch, T.J.: Methods in carbohydrate chemistry, Vol. IV, p. 61, Academic press (1964).
11. Takabashi, T., Ohasbi, K. and Hasegawa, T.: J. Technological Soc. of starch, 6 (2) : 46(1959).
12. Mazurs, E.G., Schoch, T.J. and Kite, F.E.: Cereal chem., 34 : 142(1957).
13. Leach, H.W., McCowen, L.D. and Schoch, T.J.: Cereal chem., 36 : 534(1959).
14. Toyama, T., Hizukuri, S. and Nikuni, R.: J. Technological Society of Starch, 13(3) : 69(1966).
15. Kamoi, I., Shinozaki, T., Matsumoto, S., Tanimura, W. and Obara, T.: Nippon Shokuhin Kogyo Gakkaishi, 25 : 431(1978).
16. 김용휘, 김형수: 한국식품과학회지, 6 : 30(1974).
17. Bankes, W. and Greenwood, C.T.: Starch and its components, John Wiley and Sons Inc., p. 242(1975).
18. 김형수, 이기열, 최이순: 한국식품과학회지,

- 4 : 77(1972).
19. Reyes, A.C., Albano, E.L., Briones, V.P. and Juliano, B.J.: J. Agr. Food chem., 13 : 438(1965).
20. 김종만, 양희천, 식품과학, 5(2) : 33(1983).
21. Bemiller, J.N.: Starch, chemistry and Technology, Academic Press, p. 291~309(1965).
22. Radley, J'A.: Starch and Its Derivatives (3rd. ed.), John Wiley and Sons, Inc., New York: 223(1954).
23. Charley, H.: Food Science, p. 124, John Wiley and Sons, 2nd ed. (1982).